고갈의 달력

관심사 독해 리포트 · 2026년 11월 6일자 수집분

수집 현황: 승인 피드 19개 중 제외 2개(EerdWord, Leiter Reports)와 접근 중단 5개(The Next Recession, Conversable Economist, Jesus Memoirs, Scott Aaronson, The Comics Journal)를 뺀 12개 모두 접속됨. 전날 새 글 7편을 모두 읽고 4편을 다뤘으며, 3편(카페 하이에크 '오늘의 인용', 볼드윈 논문 재소개 — 11월 4일 리포트에 이미 다룬 동일 초록, 마지널 레볼루션의 목요일 링크 모음)은 생략 — 인용문은 한 줄로, 링크 모음의 생산성·시그널링 항목은 메모로 기록. 4+3=7.

선거 주간의 마지막 평일, 글들은 달력을 펼친다. 시장은 목요일 하루에 AI 건설 붐의 가격을 다시 매겼고, 한 경제학자는 화요일에 당선된 상원의원들에게 2032년 사회보장 신탁기금 고갈이라는 기한을 상기시킨다. 재무성은 앞으로 12개월 안에 10조 달러의 국채를 새 금리로 굴려야 하고, 1914년의 영국인에게 국가가 요구하던 것은 국민소득의 8%가 채 안 됐다. 고갈은 사건이 아니라 일정이다 — 오늘의 글들은 그 일정표를 읽는다.

---

1. 목요일의 매도 — AI 붐의 재가격

[사실] 카페 하이에크가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전한 목요일 매도를 시장 보도(CNBC, NBC, 로이터, AP)로 교차 확인했다. 11월 5일 나스닥 종합지수는 5.52% 하락해 2025년 4월 4일('해방의 날' 관세 충격)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하며 조정 영역(고점 대비 -10% 이상)에 재진입했다. S&P 500은 -4.4%, 다우는 -1,833포인트(-3.4%), 나스닥 100은 -6.3%로 약 2조 3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매그니피센트 7'은 하루에 1조 달러를 잃었고 엔비디아는 9% 넘게 빠져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3% 폭락해 2020년 3월 이후 최악이었고, S&P 500의 11개 섹터 전부가 하락한 것은 수개월 만에 처음 — 정보기술 섹터(-7.3%)는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하루다. 방아쇠는 두 개로 보도된다 — 수요일 밤 퀄컴(-9.5%)과 ARM(-13%)의 엇갈린 실적, 그리고 선거의 재해석: 수요일에는 '정치적 교착=경제에 호재'로 반등했으나 목요일에는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나 모라토리엄을 공약한 후보들이 텍사스(최대 데이터센터 시장의 주지사 자리 포함)와 조지아에서 당선된 사실이 가격에 들어왔다. 전기요금 상승이 전력 집약적 데이터센터를 선거 쟁점으로 만든 배경이 있다. 여파는 금요일 아시아로 번져 한국 코스피가 개장 초 8% 급락해 일시 거래 정지가 발동됐고 삼성전자 -6.3%, SK하이닉스 -10% 이상, 닛케이 -6%를 기록했다. **[해석]** 10월 31일(인텔 -28.6%)과 11월 3일(나스닥 조정 진입)에 이은 이 리포트의

AI 투자 회수 의문 꼭지의 세 번째 절 — 이번에는 회의론이 주가뿐 아니라 선거 공약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새 국면이다. 'AI 인프라 확충이 느려지고 비싸진다'는 시장의 해석은 해석으로,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새 의회와 주정부의 일정이 정한다.

---

2. 다가오는 결산 — 새 상원의원들에게 보내는 청구서

[사실] 카페 하이에크가 소개한 베로니크 드 뤼지(머카투스 센터)의 글 — 화요일에 당선된 상원의원들의 임기가 2033년 1월에 끝난다는 것은, 이들이 사회보장 연금 신탁기금의 고갈(2032년)을 정면으로 마주할 의원 코호트라는 뜻이다. 선택지는 셋 — 급여의 22% 자동 삭감을 그대로 두거나, 낡은 설계를 개혁해 수지를 맞추거나, 수조 달러를 더 빌려 삭감을 막거나. 선거 운동에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언급한 후보는 거의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 집계가 분위기를 전한다 — 부채나 적자를 언급한 정치 광고는 2018년 140건에서 이번 선거 주기 30건으로 줄어 쟁점 순위 52위다. 그 사이 장부는 커졌다 — 막 끝난 회계연도에 시중 유통 국채는 GDP의 100%(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준), 적자는 약 2조 달러(GDP의 6.2%), 이자 지급은 4년 새 두 배를 넘어 국방비를 추월했다. 국채 평균 만기가 짧게 관리된 탓에 시장성 국채의 약 3분의 1 — 10조 달러 이상 — 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새 금리로 재융자된다. **[해석]** 11월 4일 꼭지(코웬의 '경제학자 지위' — 1960년대엔 경제학자가 감세를 설계했다)와 맞물리는 시대 풍경: 재정 지속 가능성이 선거 어휘에서 사라진 바로 그 주에,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은 싱크탱크 칼럼이다. 수치는 칼럼 인용(2차 인용)이며, 신탁기금 고갈 연도와 22% 삭감 수치는 사회보장 신탁자 보고서의 공표 추정과 같은 계열의 숫자다.

---

3. 포퓰리즘 정책의 성적표 — 반트럼프 보수의 결산, 사흘째

[사실] 같은 링크 모음의 나머지 두 꼭지(2차 인용). AEI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트럼프 식 경제민족주의의 정책별 성적을 낸다 — 무역 전쟁의 두 목표(제조업 고용 증가, 무역적자 축소)는 둘 다 달성되지 못했고, 이민 급감 정책의 목표였던 자국 출신 노동자 개선도 오지 않았다: 그의 계산으로 2025년 1월 이후 자국 출신의 고용률은 떨어지고 외국 출신은 올랐으며, 2026년 적자 2조 달러는 전쟁이나 경기침체 밖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다. 출구조사에서 중간선거 유권자의 3분의 2 가까이가 물가를 문제로 꼽았다고 전한다. 데이비드 헨더슨의 글은 반대편 진영의 책을 겨냥한다 — 억만장자 닉 하나우어의 '시장 인본주의' 선언에 대해, 시장이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라는 명제는 1776년 애덤 스미스의 것이며, 하나우어가 칭송하는 시애틀 최저임금

21.30달러 인상이 일자리 비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그가 찾을 수 있었던 시장 친화적 처방(800개 이상 직종의 면허 규제 완화, 주택 건설 규제 철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해석]** 선거 후 사흘 연속의 진영 결산이 이어지되, 오늘의 두 꼭지는 정치 평론이 아니라 정책 회계라는 점에서 실록 가치가 있다 — 무역·이민·재정의 성적표와, 양 진영 지식인의 처방 목록 비교. 양쪽 모두 자유주의·보수 싱크탱크 진영의 분석으로 귀속해 전한다.

---

4. 1914년의 영국인 — 국가가 요구하지 않던 것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이 옮긴 A.J.P. 테일러의 유명한 문장(『영국사 1914-1945』) — 1914년 8월까지 법을 지키는 영국인은 우체국과 경찰 외에 국가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삶을 통과할 수 있었다. 공식 번호도 신분증도 없었고, 여권이나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영구히 떠날 수 있었고, 어떤 통화로든 제한 없이 돈을 바꿀 수 있었고, 세계 어디서나 국내와 같은 조건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다. 대륙 국가들과 달리 징병도 없었다. 세금은 1913-14년 국민소득의 8%가 채 안 되는 규모였고, "대체로 국가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이들을 돕는 일만 했다. 성인 시민은 내버려 두었다". **[해석]** 2번 꼭지(국채 GDP 100%, 이자가 국방비 추월)와 나란히 놓이는 대칭 장치로 배치된 인용이다 — 8%와 100% 사이의 백 년이 무엇이었는지는 별도의 책들이 쓸 문제이고, 이 블로그의 선택 자체가 논평이다. 마크 스코우센 경유, 리처드 에벌링의 새 책에 인용된 것을 다시 옮긴 3차 인용임을 표시한다.

---

5. 데이팅 앱의 설계가 관심을 배분한다 — 매칭 시장의 실험실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이 소개한 소피아 슈키나(시카고대)의 노동시장 진출 논문은 직접 만든 실험용 데이팅 앱에 참가자 1,000명 이상을 모집해 약 7만 건의 스와이프 결정을 관찰한 뒤, 설계를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무작위 대조군 방식으로 측정했다. 결과의 핵심은 시각 정보의 지배 — 프로필에서 외모 요소가 차지하는 인지 부담이 적을수록 '좋아요'가 소수 인기 프로필에 더 집중된다. 집중도의 흔한 척도인 지니 계수(0이면 완전 균등, 1이면 한 사람에게 전부 집중)로 보면, 시각 요소의 두드러짐을 단순히 줄이는 것만으로는 분배가 바뀌지 않았다. 효과가 있었던 설계는 '좋아요'를 누르기 전에 비시각적 정보(직업, 가치관 등) 항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한 화면 — 이 조건에서 지니 계수가 약 0.05 낮아졌고 총 매칭 수는 줄지 않았다. 반대로 유료 회원에게만 '좋아요' 제한을 풀어주는 프리미엄 설계는 지니 계수를 약 0.1 올렸다 — 돈을 낸 사용자의 선택이 인기 프로필에

더 몰렸기 때문이다. **[해석]** 이번 주 두 번째 시카고대 노동시장 논문(11월 4일 팁 세금 논문에 이어)이고, 두 편 다 '정책이 시장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실험으로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데이팅 앱의 관심 집중은 사용자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화면 설계와 가격 설계의 결과라는 결론 — 관심의 분배도 설계되는 일정표라는 점에서 오늘의 제목과 맞닿는다. 참가자 1,000명과 7만 건은 논문 요약 소개(2차 인용)이며, 지니 계수 변화량도 같은 출처에서 옮긴 수치다.

---

6. 법률 AI 사용기 — 전문가가 스스로 검증하다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의 게스트 글로 올라온 나타샤 코웬(증권 규제 분야 20년 경력의 법률 전문가)의 글은 카프리(Caffrey)라는 법률 리서치 AI 스타트업의 제품 사용기다. 아르메니아 풀브라이트 강의용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이 도구에 복잡한 미국 증권법 질의를 입력하고, 출력된 답과 인용을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하나하나 대조했다는 내용 — 인용된 판례와 조문이 실재하고 맥락에 맞았다는 평가가 핵심이다. **[해석]** 일반 모델의 할루시네이션(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 문제가 법조계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된 맥락에서, '수직 AI' — 특정 분야의 검증된 자료에 묶인 도구 — 가 실무자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일화다. 단, 이 글은 블로그 운영자가 실린 게스트 추천문 성격의 사용기로, 독립 평가가 아니라 한 전문가의 경험담임을 표시한다. 10월 말부터 이 리포트에 이어진 사이먼 윌리슨 꼭지(전문가 검증형 AI 사용)와 같은 스레드의 사례다.

> **메모**
>
> · **권리의 정당성과 행사의 도덕성** — 카페 하이에크 '오늘의 인용'(2008년 에드워드 윤킨스): "국가는 권리에는 관여하지만 바람직함(ought)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문장. 3번 꼭지의 정책 성적표 논의와 무관하게, 권리를 가지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는가는 별개라는 고전 자유주의 구분의 한 줄.
>
> · **'세계 사무실' 재소개** — 리처드 볼드윈의 NBER 작업논문(원격 서비스 노동의 국제 무역) 초록이 마지널 레볼루션에 다시 실렸으나, 11월 4일 리포트에서 카페 하이에크 경유로 동일 초록을 이미 다뤘으므로 생략(중복).
>
> · **목요일 링크 모음에서** — 미국 생산성 성장의 상승 신호, 새로운 교육 시그널링 측정치, 뉴욕타임스의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 프로필이 메모로. 생산성 항목은 11월 3일 꼭지(보스턴 연준의 AI-생산성 계측)와 연결되는 후속 후보.

오늘의 출처

· 카페 하이에크 — Some Links (드 뤼지 사회보장 칼럼, WSJ 사설 인용, 스트레인·헨더슨 칼럼 경유) — https://cafehayek.com/2026/11/some-links-3228.html

· 마지널 레볼루션 — What They Took From You (A.J.P. 테일러 인용)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what-they-took-from-you.html?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what-they-took-from-you

· 마지널 레볼루션 — Love at first photo? (슈키나 논문 소개)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love-at-first-photo.html?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love-at-first-photo

· 마지널 레볼루션 — Natasha Cowen guest posts on Caffrey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natasha-cowen-guest-posts-on-caffrey.html?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natasha-cowen-guest-posts-on-caffrey

· 외부 검증 — 목요일 매도 시장 수치: CNBC 시장 보도 https://www.cnbc.com/2026/11/05/stock-market-selloff-ai-fears.html · AP https://apnews.com/article/stocks-markets-ai-midterm-oil-trump-7ee9c212805aa5e70cf34d25aab7a36e · NBC https://www.nbcnews.com/business/markets/tech-stocks-plunge-ai-midterms-rcna607650

이 리포트는 승인된 RSS 피드의 전날 새 글을 모두 읽고 선별해 작성되며, 정치적 쟁점은 각 저자의 분석으로 귀속해 전하고 리포트 자체는 입장을 갖지 않습니다. 인용 수치는 원문 또는 2차 인용으로 표기했습니다.